

부처님을, 그 가르침을 모독 능멸하는 자들에게 공개 질문한다.

- 신불교(영산불교)의 우주적 진리의 입장에서 -

많은 학자들은 현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물질만능주의는 인류정신의 위기와 인간성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면서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갈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자원고갈, 식량부족, 기후재난 등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인류는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그 결과 올바른 생사관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위기는 바로 진리의 위기입니다.

이 진리의 위기를 앞장서서 타개하고 극복해야 할 종교마저 제 역할을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리의 종교임을 자처하는 불교마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사이) 사마외도가 판을 치면서 세상은 말세적 현상이 점점 고조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결출한 두 분의 우주성자가 세상에 나와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하고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면서 정법의 새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인류를 고통에서 구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영산불교에서 우주적 진리를 주창하면서 올바른 생사관을 세상에 밝힌 지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오로지 기존 세계불교의 왜곡되고 왜소화된 교설을 바로잡고 21세기 인류를 향도할 차원 높은 정법사상을 사바세계에 정착시켜 고통에 허덕이는 중생을 구제하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부처님의 대자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불교의 왜곡된 교설에 물들어 있는 일부 스님들과 이들을 따르는 신도들이 이 차원 높은 정법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부처님과 그 가르침을 모독하고 정법을 펼치시는 큰스님을 마구 비방하는 사례들이 있었으며, 또한 여러 외도(外道)에서 중생을 오도하는 가르침이 더욱 치성해졌습니다. 이는 수많은 대중들의 영혼체에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죄악이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정법이 아닌 사마외설(邪魔外說)로 중생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행위는 불효오죄외도도 더 무서운 대망어 죄로서, 사후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세계에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사마외도를 받아 온다 해도 눈멀고 귀먹고 말 못 하는 3종고, 4종고의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세계 종교계와 지구촌 인류 앞에 분명히 밝혀 둡니다.

불교는 모든 세계의 종교 중, 인간의 고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궁극적인 행복세계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종교이고, 우리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위신력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진정한 우주 주(The Lord of the universe)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광 빛의 인격체로 실존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은 없지만, 우주법왕이시며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부처님은 여여히 계십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외도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불교를 포함한 세계의 어느 종교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21세기의 신불교요, 부처님 정법회상인 영산불교만이 이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견성은 공(空)을 잠깐 체험하는 것으로서, 해탈로 가는 충분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마음이 곧 부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깨달음 이후 공부(悟后工夫), 즉 해탈을 하고 붓다가 되는 공부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더욱 청정계율을 묵습같이 지키고, 특히 음계와 대망어 죄를 짓지 않도록 자각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버리는 두타행을 철저히 하여 육신에 대한 착이 떨어져 온갖 유희와 공포에서 자유로워져야 해탈을 하는 아라한의 범위를 증득하게 됩니다. 자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라한에서 보살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부처님의 타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승 없는 성과(聖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곁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부처님 같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참회하고 업장소멸을 발원해야 합니다. 보살과(菩薩) 인가를 받으려면 부처님회상에 귀의하여 오직 부처님을 위해서 이 몸, 마음, 목숨 바친다는 철석같은 신심이 필요충분조건이 됩니다. 금강경 읽고, 부처님 다라니 하고, 팔정도 청명염불을 해야 부처님의 타력가피로 4중죄를 비롯한 업장소멸을 받고, 빙의되어 있는 조상영가·천마·용신·이매망량·원결마를 떼어 줍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서 돌아가신 부모·조상님을 삼악도에서 하늘세계까지 천도하는 효행을 실천하고, 자비타타의 보살행을 삼아야 하여 선근공덕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피로 눈을 뜨고 힘을 얻어 육도생사(六道生死)에서 완전히 벗어나 삼계탈출을 하는 보살과(菩薩)를 인가 받고, 모든 인류의 꿈의 세계인 정토(淨土)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다계생을 염불수행해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그 아들이 되어 붓다가 될 인신

을 받아 올 때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가피로 무아 속 절대계에 무량억종광으로 이루어진 자기불신(佛身), 즉 삼신(三身)을 얻어 붓다가 되는 것입니다.

신불교(영산불교)에서는 10년 전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부처님께서는 무아 속 절대계(대적광세계·연화장세계)에 여여(如如)히 계신다는 것과 견성(見性)은 성불(成佛)이 아닌 이제 공부의 시작이며, 영혼체(인간영혼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함과 아울러, 완전한 생사관으로 상락아정(常樂我淨)의 세



갑오년 초파일 13만 봉촉등으로 장식된 현지사 전경

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만자(滿字) 가르침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독 능멸하고 있는바, 더 이상 중생들이 사마외도의 길을 가게 할 수 없어 부처님 정법(正法)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산불교(신불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자들이여! 얼마나 법위(法位)가 되어있는 수준인지, 얼마나 무지(無知)한지 다음

그리고 윤회의 주체가 되는 미세신(微細身)을 소멸해서 해탈을 성취한다 하는데, 인연으로 형성된 미세신이 소멸한다면 해탈의 주체도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해탈한다는 말이요? 어찌 생각하오?

9. 역사이후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고 보는 대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창조 원리가 되기에 미흡하오, 왜 그럴소? 플라톤은 이데아를 의인화(擬人化)해서, 그것이 영혼을 만들고, 육체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었다고(우주생성론) 망어를 했소. 그의 사상(시간

래서 초중학생이 대학생의 강의를 이게 말이 되느냐고 능멸 모독하는 격이라 했소.

22. 지장보살님은 명부(冥府)를 관장하시는 일찍이 불교(佛果)를 이루신 큰 부처님인데도 눈먼 견성도인들도 이점을 모르고 10지 보살 정도로 알고 있소. 또한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소개된 많은 지옥들도, 좌우보처도 어떤 분들인지 꿈에도 모를 일이요. 안 그럴소? 지장보살님은 인간의 중풍이나 식물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키(key)를 쥐고 계시오.

23. 《화엄경》, 《법화경》에선 부처님의 몸을 이루는 무량광 빛을 천 만억가지 서로 다른 색깔과 부사의하다고 말하고 있소. 무량광이 무언지 어떤 능력을 지닌 빛인지를 아시오? 현대물리학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우주를 먼지와 같은 입자로 압축할 수만 있다면, 그럴 경우 상상할 수 없는 밝은 빛과 강도와 열, 속도, 힘을 지닌 빛을 얻을 수 있다 하오. 무량광의 비밀은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오, 아시겠소?

24. 경중의 경(經) 《화엄경》을 방편설, '이판사판 화엄경'으로 TV, 라디오 혹은 책을 써서 부처님의 경전을 모독 능멸하면 그 과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오?

25. 《화엄경》은 최상품보살(극락세계) 이상 붓다라고 부처님의 인가를 받은 성자가 아니고는 부처님 경각(正覺)의 실상과 삼신(三身)이 연출하는, 그리고 범부에서 붓다가 되기까지의 보살도를 설한 원론적인 법설이니 이해할 수 없을 것이오.

얼마나 부처님이 위대하신가를 알 수 있는데 부처님도 없고, 마음이 부처라 보고 부처님을 기껏 새벽별을 보고 깨진 분 정도로 알아서 《화엄경》을 강설, 이야기함은 불보살이 용서할 수 없는 대죄인인 것이오. 말해보오.

26. 중생의 깨달음(견성체험)과 부처님의 깨달음(證覺)은 차원이 천차만억요. 깨달음과 동시에 대적정삼매에 들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일체(一體)가 되어 중생이보면 가루가 되어버릴 천문학적 무량억종광 빛을 방광하면 이 우주안의 세주(世主)들이 구름같이 물러와 공경·찬탄·배례(拜禮)하는 것이 사실이오. 《화엄경》 《세주모염품》을 어떻게 읽고서 함부로 왜곡하는가? 미래제가 다하도록 인신을 받아와도 삼종고, 사종고의 과보를 받을 대 망어를 하오?

27. 경(經)중의 왕(王) 《법화경》 《비유품》, 《중지용출품》과 《연수람품》에서 부처님은 나유타 겁 전 불교(佛果)를 이루신 이후, 무아 속 절대세계에 계시면서 보신(報身佛)로, 혹은 응화신 불신(佛身)으로 사바세계, 여러 불국토를 다니시면서 교화해서 헤아릴 수 없는 천 만억 분화보살과 삼계의 붓다를 내셨다는 경문은 사실입니다. 《화엄경》, 《법화경》은 불(佛)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오. 마음이 부처라 말하지 마오. 중생을 오도(誤導)하고 그들을 데리고 구간지옥에 갈 망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오.

28. 《법화경》 《비유품》에서 사리불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자기는 부처님 회상에 와서 일찍이 공성(空性)을 증득(소위 깨친 후 보림을 마쳐 초과 하나 되었음을 의미)함으로 공부를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부처님께서 아라한(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니... 견성(깨달음)후 보림(報任)을 마친다 해서(공성증득, 여기가 아라한) 부처나 됐다고 볼 것이오?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 불신(報身)을 얻어야 붓다인 것이오. 말해보시오.

29. 또한 《법화경》 《비유품》에서 "공성(空性)을 증득한 것으로는 완전한 멸도(滅佛)가 아니고 (무아 속 절대계에) 자기 32상의 색신을 얻어야 천인,아수라,용신 등을 교화할 수 있는 것..."에서 32상의 빛으로 된 거룩한 보신(부처님)을 얻어야 성불(成佛)이라 했소. 《저 유명한 티베트불교와 중국 선불교와의 법전(法戰, 삼예의 논쟁)에서 선(禪)이 완패한 논거가 되오.) 적멸의 상(相)은 인연화합이 아니요. 부처님 빛 역시 인연소생이 아니요. 그래도 대망어 한 대죄를 참회하지 않겠소?

III. 무아론 ('영혼체가 없다'는 기존불교의 교설을駁하며)

30. 신불교의 主人空(힌두교 요가학파의 主人空과 선불교의 主人公과도 다른 개념)이 윤회, 연기, 창조, 해탈시 주체라 하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소?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을 답하시오. 만일 아래 61개 문항 모두에 대해 완벽한 점수를 얻지 못하는 입장에서 정법(正法)을 훼손하며 막행막식하는 이들은 분명히 아비지옥을 가고 혹 사람 몸을 받아와도 삼종고·사종고로 살다가 다시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이오. 신불교(영산불교)를 모독 능멸하지 마시오.

- 아래 질문들은 선종의 선문답과 차원이 훨씬 다른 높은 질문임을 밝혀둡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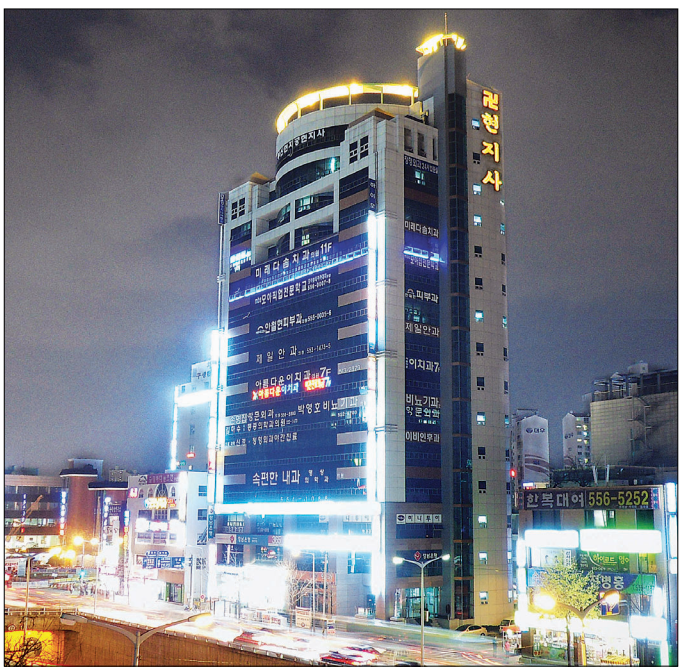
I. 우주론 (나와 우주 삼라만상의 생성)

1. 대적멸의 상적광세계(현대물리학에서는 11차원을 아는가?)
2. <10차원까지 아우르는(전 우주를 아우르는) 진리를 정의해 보오. 사사무에(事事無碍)의 도리, 無我, 무량억종광 빛 ...
3. 마음(순수의식, 인간본성)이란 무엇이오? 공(우주본체), 공(空)이란 무엇이오? 그럼 공(空)의 본질은 무엇이오? 선가(禪家)에서는 마음을 일물(一物), 공(空), 주인공(主人公)으로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견해라고 보시오?
4. 사람들이 '나', '너' 라고 부르는 '나'와 '너'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5. 아무것도 시·공이 없는데서 우주만물은 어떻게 해서 생멸(生滅)하고, 또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오?
6. 어떻게 인간탄생은 이루어진다고 보오? 하늘에서 떨어졌소? 땅에서 솟아 나겠소?
7. 힌두교는 자신들이 모든 종교의 종교라 자부하오. 그러나 그들의 핵심사상인 범(梵)은 비인격이며, 비인격인 범(梵)의 모든 힘으로는 인간을 포함, 우주만물을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소. 그 이유는 무엇이오?
8. 힌두교의 가장 심오하다는 상키야(Sāṃkhya) 학파의 철학(사상)에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원리에 대한 커다란 허점이 있소, 무엇이라 보오?

11. Big Bang은 왜 일어나는 것인지 아오?
12. 빅뱅 이전은 무엇이 있는 줄 아오? (11, 12번은 달라이 라마의 의문점)

II. 불신론 (부처님의 실존과 절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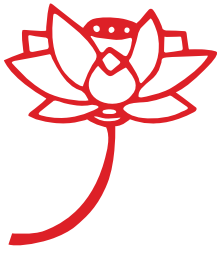
13.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아는가? 붓다의 붓다이신 부처님은 우주자체, 우주의 주(主)라 하는 이유이기도 한...
14. 법신불을 아는가?(어느 대학승도, 불교학자들도 참 의미를 오해하고 있소.)
15. 불성(佛性)이란? 무엇이 불성(佛性)이오?
16. 어떻게 불신(佛身)이 얻어지는지 아는가? 불교 이외 불신(佛身)을 얻을 수 있는 종교는 없소.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것이오. 현재의 왜소화된 불교, 아니 사마비, 외도, 사마의 교(敎)는 혁파되어야 하오.
17. 파탄잘리(Patanjali)가 도달하지 못했던 부처님의 대적정삼매를 문소.
18.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아는가? 원만보신을 아는가? 거룩하신 삼계 붓다님들의 부사의한 신밀(身密)은 크리슈나(Kṛṣṇa)도, 파탄잘리(Patanjali)도 선망의 경지다.
19. 불신(佛身)의 변화신(變化身)을 아는가? 예를 들면 문수보살님께서는 동자의 모습으로 현신하신다.
20. 천 만억 화신(化身)을 아는가? 응화신(붓다가 사바 세상에 받아 오시는 人身)은 왜, 어떻게 오시는지 아오?
21. 문수(보살)는 지혜이거늘 문수의 법왕자란 무슨 말이냐고 했지요? 문수보살님은 부처님 다음가는, 과거세에 7번이나 불교를 이루신, 붓다 중 지혜가 출중한 부처님이오. 도대체 적멸(寂滅)의 상적광세계에 계시는 32상의 적멸상(寂滅相)도, 무량광 빛도 상(相)이라면 붓다가 대열반에 드시면 완전 무(無)가 된다는 말 아니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극구간지옥의 벌을 어찌 감당하려고? 그



현지사 부산본원



현지사 대전본원



21세기 한국 땅에 인격적 불신(佛身)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상모 단엄한 무량광 빛의 인격체! 부처님의 전지 만능자재하신 위신력은 필설로 만분의 1도 표현 못해!

31. 신불교(영산불교)에서는 인간영혼의 실체, 윤회의 주체 곧 '나' 주인공(主人空)을 말하고 또한 무아윤회는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왜 무아윤회가 불가능한 줄 아오?

32. 유식가(唯識家)의 아뢰야식(阿賴耶識)도, 대승불교의 진아(眞我), 주인공(主人公)으로도, 선종(禪宗)에서 말하는 참마음도, 부파불교의 여러 식(識)이론도 윤회주체의 자격이 없소. 따라서 윤회의 주체가 아니오.

식(識)이 허공같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名不得 狀不得, 無名無字, 圓同大虛, 寂照, 昭昭靈靈의 주인공(公), 一物이 어떻게 지옥을 가서 벌을 받고 극락에 가서 끝없는 즐거움을 누리던 말이오? 육도윤회설은 불교의 정설이요, 확실한 부처님 말씀이요, 진리요. 어떻게 생각하오?

33. 왜곡된 무아설(諸法無我)로 인도 불교는 사실상 힌두교의 아트만(atman) 이론에 속수무책 굴욕적인 망신을 당해 드디어 망한 역사적 사실을 모르오? 무아(無我)의 참뜻은?

34. 힌두교의 아트만(atman)은 진정한 윤회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윤회주체에는 자격조건이 있소.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오?

IV. 완벽한 생사관

35. 신불교(영산불교)에서는 완벽한 생사관(生死觀)을 정립하고 있소. 완벽한 생사관을 서구지성인(西歐知性人)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갈망하고 있소. 완벽한 생사관을 말해 보시오.

36. 원결 마(魔)에 대해서 아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결 마(원결귀신)가 그 몸속에 빙의되어 있소. 그래서 온갖 사고사(事故死)를 당하는 것이오.

37. 正法이 무엇이오? 정법을 훼손하는 대 망어는 극 무간지옥행(行)이오.

38. 앞으로 이승을 마감하면 어디로 갈 것으로 보오? 당신(들)의 영혼체의 색깔이 어떤 줄 아오. 지옥 갈 사람들은 거무튀튀하고 대망어를 함부로 한 이들은 쇠철판이 유식(唯識)에서 말하는 아뢰야식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것, 그것이 때가 되면 소위 아뢰야식신(識身)의 철판이 썩어져 이것이 다 마모되어 없어질 때까지 무간지옥의 과보를 받소. 그리고 어떤 천마(天魔)와 지상마(귀신, 중음계)들이 접속 빙의된 줄 보지 못하는 거요?

자기 혼자만 볼라다 지옥에서 지옥이 무너질 공경동안 내내 극한 중벌을 받을 일이지, 좋아라고 법문 듣고 책을 본 수십만의 눈먼 중생까지 그 지옥으로 함께 데리고 갈 정법훼손의 대 망어를 무려 아마 8년이 넘도록 마이크에 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한 단 말이오?

39. 중음계에 떨어져 명부(冥府)에도 들지 못하는 귀신들이 많소. (아함경)에 조예가 아무리 깊은 불교학자나 견성도인(소위 쏜체할 후 보림까지 마쳤다는)도 이들을 충분히 범문할 수 없소. 왜 중음계가 되며 어찌해야 명부에 드는 것이며 그 세계의 고통을 알기나 하오?

V. 수행론 (견성의 한계)

40. 견성, 깨달음이란 뭐오? 오후(後)공부가 이제부터 중요하오. 이제부터 힘을 얻어 눈을 떠 아라한이 되고 보살과를 얻어 부처님으로부터 인가 받으려면 우선 마장을 막아줄 붓다회상(부처님께 서와 계시는)을 만나야 하오. 그리고 그 붓다회상에 귀의하고 부처님께 귀의, 참회, 발원해야 하오. 다짐생태 4종죄를 비롯한 업장 소멸하는 청명 열불공부, 돌아가신 부모조상을 삼악도에서 하늘로 천도해 드리는 일, 이타(利他)의 보살행을 해야 하오. 그리고 절대로 정법 훼손하는 대망어죄 · 오역죄 · 사바리죄를 지어선 안 되오. 지옥으로 끌려가서 극고를 당해도 자유인이 됐다 하겠소?

41. 견성체험하고서도, 보림을 마쳐 조사되어 선(禪)의 정맥(正脈)을 이은 대선사라도 사후세계와 육도세계는 물론, 자기나 자기 제자의 몸속에 빙의된 원결 마(魔) 등을 보지도 폐지도 못하는 수준이라면, 어찌 해탈마저 가능하다 하겠소?

42. 세계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지만, 어느 종교도 삼매로 이끌어 줄 스승이 없고, 또 마장을 떼어주고 막아줄 스승이 없소. 스승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오.

43. 또한, 보살의 해탈신(菩薩解脫身: 자기의 아기보살신)이나 불신(佛身)을 만들어주는 스승이 없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라한 까지만 가능하오. 보살이나 부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오. 부처님 회상인 신불교(영산불교)에서만 부처님의 타력(가피)으로 아라한(정법)이 되고 보살이 되오. 그래서 영산불교가 위대하다는 것이오.

44. 음계(淫戒)를 비롯한 계율을 목숨같이 지켜야 하오, 아니면 악도(惡道)를 걸고 면치 못하고, 승려로서 마행막사하면(음계를 비롯 중계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오.) 악도를 면할 수 없소. 어찌 보오?

45. 신통이 오는 데는 큰 두 가지 길이 있소. 또 신통을 하면 큰 업(業)을 짓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단 부처님같이 법(언기법) 자체가 되신 분은 제외함> 그리고 죄인을, 악(惡)을 도와주거나 따르는 이들은 죄업을 짓소. 깊이 명심해야 하오. 안 그렇소?

46. 무아(無我), 무아 모든 것의 실체는 없다면서 천마(天魔) 천마가 무엇이오? 그 능력의 한계는 어디인지 아오?

47. 용신이 무엇인지 아시오? 수행자들, 특히 계율이 없는 수행자들에게 많이도 빙의되어 있소. 구령이 신이... 대답해 보오?



제주분원 대적광전 점안식

48. 티베트 밀교(금강승)의 즉신성불론(即身成佛論: 무상한 육신 안에 佛의 三身을 현중 한다는 成佛의 원리, 소위 죽음과 바르도)와 탄생을 佛의 三身으로 성숙시키는)은 부처님 정법(正法)에 반(反)하는 사설(邪說)이오. 불신(佛身)은 그렇게 얻어지는 법이 아니오. 그리고 까귀파(bKābgyud)의 '나로 六法(N-ro chos-drug)' 중 포와(pho-ba, 자주 사람 몸을 받아오는 의식전 수행법), 동족(Groñ-jug, 500살에서 2000살까지 장수한다는 비법),

서도 범아일여(梵我一如)로 깨닫는 방법이 몇 가지 있소. 그러나 그런 수행으로는 윤회를 완전 벗어나는 곧 삼계를 탈출 왕생극락 할 수 있는 보살과(菩薩果)는 절대 얻을 수 없소. 하물며 부다는 더 더욱 나올 수 없소. 그들은 수백에 달하는 영적스승을 냈다고 하지만 그들 모두는 아라한에서 무아아라한급 이상은 아니오.(그것도 의도하느니) 그 이유는 무엇이오?

54. 19세기 인도의 유명한 '라마크리슈나'라는 종교인은 세계적인 종교, 즉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를 차례로 입문, 열심히 수행하여 선정에도 들어볼 정도로 크게 깨달

았던 수행자였소. 그는 말하기를 "모든 종교는 그 근본에 있어 동일하다"고 했소.

아니오, 불교(正法)는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 나아가 삼계를 탈출할 수 있는 보살, 아니 우주와의 합일(合一)로 우주의 주(주)까지 될 수 있는 위대한 종교임을 분명히 해두오. 자력을 기반으로 한 타력(평정도 청명열불)종교요, 염불이 정법(正法)이오, 삼계의 모든 붓다님들이 염불(念佛)로 불과(佛果)를 이루었다오. 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제주분원 세 전각

사실 이 두 비법은 우주이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되오. 다음으로 마하무드라 수행법(Mahāmudra, 공성과 지복의 합일에 집중하는 요가)으로도 성불(成佛)과는 거리가 백 천만리나 되오. 인도불교가 소멸 했던 유력한 이유 중 하나로 밀교(금강승)의 발달을 들 수 있지요. 또 티베트가 자랑하는 사하라, 나로빠(Naropa), 마르빠(Marpa) 등 84명의 스승(Guru)들(그들은 붓다의 법위로 불) 역시 아라한이나 무무 대아라한급 그리고 몇몇 보살은 있지만, 부다는 절대 아니오. 왜 부다가 아닌 줄 아오. 위의 나의 이런 평가를 논박하겠소?

49. (이조 500년 불교를 이단으로 보고 핍박했던) 성리학의 이기론(理氣論)으로는 인간을 포함, 천지만물이 생겨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없소. 그 이유는?

50. 인간은 끝없이 해탈하지 못하는 한 육도를 윤회 생활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리학(性理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오.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오?

51. 이조 이성계를 도와 역성(易姓)혁명에 성공해서 국정을 총괄했던 삼봉 정도전은 성리학자로서 역불승유의 국시를 창안확정한 사람이오. '불씨잡변'을 지어 부처님과 불법(佛法)을 능멸했고, 이에 함해 득통스님이 반론을 냈으나 지옥과 천당이 없다는 그들의 논리에 긍정하면, 그렇다 하면 어떻게 그들의 사설(邪說)을 돌릴 수 있었겠소. 지옥, 천상, 아귀, 귀신, 극락, 불보살을 모두 마음의 상태로 본다면, 이것은 단연코 사마(邪魔)의 설이지 어찌 반론이 될 수 있겠소. 아니오?

52. 주자(性理學)의 격물치지(格物致知)로 활연관통(禪에서의 견성)하더라도 역시 이 정도로도 해탈 할 수 없는 이유?

53. 힌두교는 세계종교 중 자기네 종교가 제일이라 하오. 거기에

55. 19세기 인도의 위대한 종교인 '람티어스'는 크게 깨닫고 나서 한 일성(一聲)이오. "나는 우주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내안에 우주가 있다. 나는 전능한 브라흐만이 됐다. 나는 이제 대자유인이 다."고 춤을 추었소. 선가(禪家)의 확실히 수준을 넘는 경지요. 그러나 이렇다 해서 완전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보오?

56. 도가(道家)의 대주천 수행법으로 얻어지는 체의신(허공신, 양신)을 어찌 보오? 이것을 얻어 장생불사(長生不死)할 수 있다고 보오?

57. 장자(莊子)는 크게 깨달음을 얻어 도를 볼 수 있었으며 시공을 초월하고 생사도 없는 경지에 들었다고, 대자유인이 됐다, 노래하고 있소(선종의 확실히 수준). 이 법위는 결코 보살의 경지는 아니오. 어찌 보오.

58. 유대(신비주의) 카발라(kabbalah)에서는 신(인간) 우주를 창



현지사 고성분원

조했다는 신이란 없소. 인간이 만들어 낸 우상이오.)의 은총으로 애제자의 정수리에 빛을 쏟아 부어 정화해서 구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신(民族神)의 은총으로 어느 하늘까지 가능하도 보오. 왜? 모두 윤회를 벗어난 아라한의 범위에 이를 수 있다고 보오? 그 이유는?

VI. 구원론

59. 무량광종광으로 이루어진 부처님(붓다)만이 인간의 크고 작은 업장을 소멸시키고, 보살과 붓다를 내시오. 부처님의 우주적구원력을 아시오? 그래도 마음이 부처라는 대망어를 할 것이오? 왜 부처님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쓰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대시오?

60. 기독교가 세계종교로서 토대를 굳히게 된 소위 플라톤(Platon)철학의 이데아설이, 우리 인류모두가 구원될 수 있는(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상이라 보오?

61.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부모 · 조상영가를 삼악도에서 하늘까지 천도해주어야 수행자는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할 수 있는 것이오. 현재 절에서 1~2명을 다비문 따라 천도해주는데, 분명히 말하자면 100년 아니라 1000년을 모셔주어도 무주고혼(중음계)이 나 삼악도(지옥 아귀 축성)에서 한 걸음도 못 가오. 지옥을 가서 영가님을 데려와야 하는데 그 어느 견성도인 아니 천만 명의 견성도인의 힘을 다 합해도 이는 불가(不可)하고, 축성 몸을 받은 부모 조상을 어느 곳 무슨 짐승이 뒀는지를 모르는데, 설사 꿈(계시)을 통해서 자기 집 개로 태어났다고 가정해도 개 몸속 조상님의 영혼체를 위의 천도 장소로 모셔 와야 되는데 또 100년 1000년 명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천을 헤매는 무주고혼 조상영가를 어찌 붙들어 올니까. 신통이 장해서 바람같이 달아나는데...

그리고 설사 모두 (가령 4집안 자기의 부모, 부인의 부모 쪽 100여 명의 영가)를 천도의 법석에 모셔왔다 가정하더라도 그들이 다 겁생할 지은 악도의 업을 소멸해 주지 못하면 천도는 불능인 것이오. 부처님, 지장보살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제는 4번 정도로 아래 하늘 (하늘도 6하늘, 자세히는 54품 하늘이 있고, 그 위가 교가(敎家)에선 색계천, 무색계천이라 하는 성중(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하늘이 있소)에 갈 수 있소. 현지사 천도재를 면죄부, 면벌 부라 온갖 악의적인 말로 비방하지 마시오. 역시 대 망어 죄로서 자기 순간이라도 지은 업(業)의 종자(種子)는 결코 썩지 않고, 반연을 만나면 과보를 받소.

부처님은 그 사람의 보람된 삶을 1. 정법회상으로 귀의해서 공부 잘 했는지 2. 얼마만큼 중생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십니다(보살도, 신도의 시은(보시)으로 살면서 그들을 악도로 이끌어 가는 외도(外道)의 삶을 살았다면 설사 대장경을 앞뒤로 외우고 총명과 번재가 겹출하더라도 미래는 없소. 다만, 삼악도(三惡道)를 영원히 윤회할 뿐입니다.

부처님과 붓다 교단을 악의적으로 비방 능멸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바, 더 이상 부처님의 정법(正法)과 부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소.

다시 말하지만 부처님은 무아 속 절대로 32상 거룩한 모습(여기 모습은 인연화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오, 다시금 강조하오)으로 계시오. 자성광을 넘어서 천 만억배의 광도와 강도, 힘을 지닌 빛(무량광)을 상(相)이라고 했지요? 대적정 삼매를 통과하지 못하면 무량광종광 빛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을 볼 수 없고, 법설을 들으려면 더욱 깊은 밀장의 관문이 있소.

깨달음은 붓다 되는 첫 관문일 뿐이오. 마음이 부처라는 선종(禪宗)의 주장은 부처님을 모독 능멸하는 말이오. 초등학교 수준에서 깨달은(正覺) 하지 마시오. 거듭 경고하오. 나의 자비로운 충고를 설수 안하면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아버지육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이 진실의 말만은 빼어 새겨주시오.

붓다의 붓다이신 부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시오. 나머지는 밀장이어서 말하지 못하오. 붓다는 겁에 하나 나 올 뿐! <모든 대승경전에서 밀장이어서 보살과 붓다 되는 내밀한 관문은 가르침이 없소.>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붓다는 삼천大千세계의 중생과도 바꿀 수 없다 하겠소. 이 이상 모독 능멸하지 마시오.

위 질문들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답(대아라한, 보살지를 넘어선 상품보살, 붓다 아니면 대답할 수 없음을 못하는 경지에서 신불교(영산불교)를 비방 모독하는 자들이여, 그 대망어의 무서운 과보를 어찌 감당할 것이오, 더구나 이들을 추종하는 사람은 악도(三惡道)로 떨어진다 사실을 분명히 해주겠소.

보신(報身) 부처님, 전지 만능 자재한 부처님께서 와 계시는 신불교(영산불교) 붓다교단을 활뜯지 마시오. 정법훼손의 대죄로서 극 무간지옥에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나올 수 없고, 혹 잠시 나온다 하더라도 삼중고 · 사중고로 산다는 것을 거듭 말하오. 단, 붓다 아니면 이들을 구할 수는 없소.

불기 2559년(2015년) 8월 28일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자재 만현**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초천읍 신복로 311
• **부산본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 033-243-1787
☎ 064-783-5355
☎ 051-554-5150

• **대전본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고성본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전항길 7
• **서울본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 042-525-5325
☎ 033-681-5515
☎ 02-453-5953

• **대구본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 **일본본원** 일본국 야마구찌현 이와쿠시시 오초조 3-3-10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53-654-5557
☎ 81-827-31-1661
☎ 042-525-5325